

행복한 변신... 농어촌이 살아난다

여수 적금도 자율공동체 구성 5년만에 소득 27배
 구례 오미 한옥마을 탈바꿈...입주 대기자 200명

한적한 농·어촌에 변화의 바람이 밀려들고 있다. 쪼든 가난에 물으므로 떠나기만 했던 섬 마을이 고소득을 올리는 부자 마을로 탈바꿈하는가 하면, 촌동네가 전통 한옥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외지인들조차 부러워하는 '살만한 동네'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58명이 자율공동체로 45억 소득 = 여수 화정면 적금도(면적 0.78km) 주민 58명이 지난해 거둬들인 소득은 45억. 절반인 65세 이상인 주민들이 한 명당 75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5년 전인 지난 2005년 벌어들인 전체 소득 1억7700만원의 27배가 넘고 지난해(35억)보다 10억이나 많다. 한때 쪼들리게 가난했던 섬은 지난 2005년 마을 주민들이 자율공동체를

구성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개별적으로 소유했던 어구를 공동 소유로 바꾸고 어업권도 공동으로 변경했다. "왜 내 어장에서 고기를 잡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던 어민들이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고 바지락을 캐는 사이로 발전했다. 개인적으로 샀던 문어잡이 배들을 모두 팔게 하고 대신, 5t짜리 공동 문어잡이배 3척을 구입했다. 좁은 바다에 10척이 넘는 배가 100줄 이상씩 뿔뿔하게 쳐놓으면서 '자원 고갈', '어구 훼손' 등으로 몸살을 앓는 일도 없어졌다. 새조개, 참꼬막, 강성돔, 바지락, 천초(꽃, 물자반), 장어, 문어, 김 등 풍부한 수산물은 황금어장의 밑천이 됐다.

이 때문에 어촌계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외지인은 절대 안되고 10년

넘게 섬에 태를 묻은 주민들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촌계원 가입금으로 9000만원을 쥐고 못 들어간다'는 소리로 나온다.

주민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 고싶은 섬' 개발에도 손을 댔다. 2시간40분 걸리는 배편 대신, 도선을 투입해 7분 거리로 바쁘고 풀장과 숙박시설이 딸린 1억5000만원짜리 바지락 5척을 사들여 내부 설계를 직접 했다. 지난해 1747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3300만원의 짭짤한 소득을 거뒀다.

▷땅 사려는 대기자만 200명, 구례 오미 행복마을=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오미마을은 고풍스런 한옥 25채가 층층이 들어선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운조루가 있는 마을로, 봉황이 금가락지를 떨어뜨린 형국이라는 금환낙지(金環落地) 형인 천하의 명당이다.

3년 전인 2008년만 해도 '명당'일 뿐, 불꽃없는 산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28~29가구가 어쩔 수 없이 살

면서도 "더 살아가 하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손에 꼽았다. 그러던 촌마을이 땅만 주변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200명이 줄을 서는 '살만한 마을'로 바뀌었다.

없는 돈을 보며 한옥을 짓는 보조금을 받아 한옥을 짓기 시작한 것. 절엔 괜한 짓 하나 싶었던 주민들지만 한옥이 들어서고 길도 깔끔하게 정비되면서 이사 온 사람도 늘자 "잘 됐다"는 생각뿐이다. 현재 40가구 80명이 살만한 동네를 지키고 있다.

촌동네가 한 쪽의 그림 같은 한옥 마을로 탈바꿈하자 마을을 들쭉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한옥을 체험하려는 관광객들도 줄을 잇고 있다. 이병주(57) 행복마을 추진위원장은 "기존 마을을 한옥마을로 리모델링한 뒤 매일 집을 짓겠다고 땅을 보러오는 외지인들이 많다"면서 "전통 마을 경관을 지키기 위해 농경지에 절대 집을 짓지 않기로 주민들이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



파괴된 '카타피 궁' 무아마르 카다피 친위부대원들이 20일 다국적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리비아 트리폴리 외곽의 '카타피 궁'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연합뉴스

솔렌시스, 광주 등지 100일만에 주문 폭주

터치센서모듈 700억 수출 계약...제휴업체 현대아이티도 공장 설립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인 현대아이티(주)가 광주 첨단산업단지에서 터치 센서패널모듈 제조공장을 설립한다.

현대아이티는 2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말 첨단산업단지에서 터치 센서 패널 모듈 제2공장(부지 3636㎡)을 신축하기로 했다.

경기도 이전에 분사를 두고 있는 현대아이티의 광주공장 설립은 정전용 터치 센서패널모듈 제조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광주 소재 솔렌시스(주)와의 기술 제휴에 따른 것이다.

현대아이티는 지난 2000년 5월 현대전자에서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을 분사한 회사로, 국내·외 300여개의 거래업체가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필리핀의 해외법인 등 글로벌 판매 체제를 구축한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광주 첨단산업단지에서 제1공장을 준공하며 터치 센서 모듈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한 솔렌시스는 최근 중국기업과 7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솔렌시스는 다음달 중으로 100억원을 신규투자해 제2, 제3공장을 잇



21일 오전 강운태 광주시장은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수도권 소재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인 현대아이티(주)와 터치 센서 패널 모듈 제조공장을 광주에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좌측부터 현대아이티 이진호 대표이사, 강운태 시장, 솔렌시스(주) 우관태 대표이사.

따라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솔렌시스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비공개로 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수는 없으나 제1공장이 보유한 연간 600만개 생산능력으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 물량을 올해까지 생산하는 것도 빠듯하지만 앞으로도 주문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현대아이티에 이어 솔렌시스의 신규투자로 인해 최소 500여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식기자 chadod@kwangju.co.kr

“중이온가속기 설치할 곳 광주 뿐”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 대토론회 ▶지상중계 3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로는 호남이 최적지라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됐다. 중이온가속기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호남만이 유일하게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명분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프라,

교육·자연환경이 뛰어난 정주여건 등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광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 광주국제과학고류협력센터에서 열린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입지 여건을 들어 "광주가 과학벨트 최적지"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운태 광주시장, 정순남 전남부지사, 김영진 국회의원, 윤봉근 광주시의회장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노도영 광주과학기술원 극한광응용기술 국가핵심연구센터장은 "과학벨트에 구축되는 중이온가속기는 미세구조를 연구하는 거대 과학장비로 지면에 민감하다"면서 "하지만 호남과 경쟁하고 있는 충청과 영남은 규

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남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국제 교류 시설을 갖춰 국제과학도시로서 역량이 뛰어나고 값싼 땅값 등 부지확보의 용이성, 무안 국제공항과 철도(KTX) 등 국내외 접근 용이성 등이 앞선다"고 밝혔다.

신용진 조선대 자연대학장은 과학벨트를 내륙 삼각벨트로 분산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대형연구시설 설치, 기초과학 거점 조성 등 과학벨트 기반조성 사업을 R&D특구와 동반추진해야 시간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석 (주)유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회장은 "일본 대전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논리 때문에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망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경제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과학벨트는 국민의 공감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입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문화체육관광부' 제3탄 '당신을 위한 예술, 발레'

“발레가 귀족예술 이라고요? 천만에요, 서민 마음 위로해주는 사랑의 춤”

- 최태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 24일(목요일) 오후 4시 빛고을문화관 4층 다목적홀
- 문의 : 062-670-7423, 062-220-0651



光州日報社 · 광주문화재단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이사 최금환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제주도
 오리엔티어 & 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

2박3일 ★ 목포 - 제주도 ₩139,000원 ~
 2박3일 ★ 장흥 - 제주도 ₩159,000원 ~
 2박3일 ★ 항공 - 제주도 ₩249,000원 ~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 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1박2일 ₩279,000원 ~
 2박3일 ₩309,000원 ~

2011 봄 미국/캐나다

9일 ★ 미서부 3대캐년 태평양 해안 완전일주 ₩2,390,000원 ~
 9일 ★ 미동부/캐나다 동부(퀘벡),나이야가라 완전일주 ₩2,890,000원 ~
 13일 ★ 미서부(3대캐년)/미동부(나이야가라)완전일주 ₩3,590,000원 ~
 불포함: 각종팁(가이드/기사 1일/1인 \$10, 식당, 호텔 \$1), 5월이후 유가할증료 인상분, 선택관광, 미국 ESTA 비자(US\$14 - 대행사 20,000원)

중국

3박4일 ★ 무안 - 상해, 황산 ₩739,000원 ~
 4박5일 ★ 무안 - 북경, 태향산 ₩899,000원 ~
 4박5일 ★ 무안 - 상해, 장가계, 천문산, 향주 ₩1,089,000원 ~
 불포함: 개인적인 경비

두근두근 봄에 떠나는 첫 여행
 조이 여행사와 함께 하세요!!

동남아

인천-싱가폴

5일 ★ 싱가포르 / 조호바루 / 바탐 ₩799,000원 ~
 5일 ★ 싱가포르 / 빈탄 ₩779,000원 ~
 불포함: 기사가이드팁(\$40), 비자(15), 향만세(\$20)

인천 - 베트남/캄보디아

6일 ★ 베트남 / 캄보디아 ₩769,000원 ~
 기사&가이드팁(\$50), 생수, 룬레샵사공(2), 캄보디아 급행비자(25)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원 영업보통부담 기업 / 여행금지 기업업체 * 1억원 이상 영업보통부담 기업 / 여행금지 기업업체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회사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동버스 / 전차 * 경비: 관광 및 숙박, 전동버스 / 전차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 아람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여행